

욥기

세션 7: 욥기의 신학적 기초,

보복 원칙 삼각형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회기 욥기의 신학적 기초, 보응 원리 삼각형입니다.

보복 원칙 소개 [00:26-2:46]

책 자체로 넘어가기 전에 책의 목적을 확장하여 책의 신학적 토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특별히 응보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고대 세계의 위대한 공생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응원칙은 기본적으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상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내가 의인, 준수하는 자, 신실한 자를 말할 때 그 말을 대신하면 그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건강, 성공, 농작물이 자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행복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신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준의 재난이든 다른 수준의 재난이든 다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의인은 번성할

것이다. 악인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복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든 그들이 신이나 신들에게 은총을 받거나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상황을 가져온 무언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그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상황에 반영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인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임을 반영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 도 합니다. 또는 “내가 이걸 벌기 위해 무엇을 했지?” 상황이 나빠질 때. 따라서 욥기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보복 원칙입니다.

욥의 보복 원칙 [2:46-4:06]

사실, 욥기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응보 원칙을 매우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욥기는 응보 원칙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보복 원칙을 봅니다. 의로운 사람은 형통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사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변영하고 있다면, 그들은 옳은 일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상황이 극적으로, 비극적으로 변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런 종류의 재난을 가져오고 높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정말, 정말 나쁜 일을 했음에 틀림없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극단으로 되돌아갑니다. 욥은 인생의 최고 높이에 있고 가장 낮은 고통의 깊이까지 간다. 그 극단은 우리가 명석한 마음으로 보복 원칙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도전자와 보복 원칙 [4:06-5:53]

그래서 욥기는 이 보복의 원칙을 살펴본다. 결국 도전자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보복 원칙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보복 원칙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명확히 하고,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법 제도를 위해 일하고 계신 논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선을 행합니다. 당신은 좋아집니다. 당신은 나쁜 짓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보복 원칙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일종의 정량화하거나 체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은 이익을 기대하는 은밀한 동기를 설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의 발전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 이에 챌린저는 과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책의 한 부분인지에 대해 보복의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욱의 주장은 보복 원칙이 시행되지 않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면 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에서 이야기한 비난의 두 갈래에서 보복 원칙이 대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의 보복 삼각형 [5:53-7:12]

이제 우리는 삼각형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클레임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아래쪽 모서리에는 보복 원칙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다른 아래쪽 모서리에는 욱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서리인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제 욱이 변영하는 한 그 삼각형은 매우 편리하고 매우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욱은 의롭고 보응의 원칙이 참되고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욱이 고난을 겪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삼각형을 바라보고 무언가 가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욱, 보응의 원칙 세 가지를 다 붙들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포기할지 알게 됩니다. 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청구의 삼각관계[7:12-8:24]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욥의 친구들이여, 나는 그 모퉁이에 그들의 요새를 짓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삼각형의 보복 원칙 모서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요새를 세웁니다. 그들은 연설에서 계속해서 보복 원칙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논증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보복 원칙의 옹호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새를 짓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 유리한 지점에서 그들은 삼각형의 다른 두 모서리를 내다봅니다. 어느 쪽이 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욥이 정말로 의롭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까?

글쎄,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보복 원칙이 참되고 하나님이 감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는 당연히 욥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의롭지 않고, 외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의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욥입니다. 그래서 보복 원칙 코너 에 요새를 쌓고 , 욥의 코너에서 포기한다. 그것은 가야 할 사람입니다.

욥과 보복 삼각형 청구 [8:24-9:57]

물론 욥과 그의 관점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가 요새를 짓는 곳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퉁이에 요새를 짓습니다. 그의 의는 그의 마음에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약간의 어색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조심해야 하고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는 보복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생각을 포기할 것인가?

가난한 욥에게는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것은 계속해서 그는 보복 원칙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것의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욥의 연설이 책을 통해 계속됨에 따라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공의를 행하시는데 대해 점점 더 의심하고 회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구석에 성을 쌓고 보응의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석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와 보복의 삼각 관계 [9:57-14:59]

이제 대화 섹션을 통해 나오는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외에도 네 번째 인물인 엘리후가 있습니다. 책의 끝으로 향하는 두 번째 담화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후는 여전히 삼각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의 삼각형 꼭대기에 성을 쌓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엘리후는 무엇을 포기할까요?

그는 보복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욕의 다른 친구들처럼 욕의 의를 의심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삼각형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르게 설정 하고 친구들이 그와 가깝지도 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엘리후는 다른 두 귀퉁이 중 어느 것을 포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영리하다. 그가 하는 것은 보복원칙을 보고 보복원칙이 옳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복 원칙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은 과거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엘리후가 다가와서 말하길 아마도 그것보다 더 복잡할 것입니다. 보복 원칙을 보는 방식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해결하고, 대응합니다.

보복 원칙을 더 예방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과거에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것입니다. 따라서 보복 원칙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는 일은 친구들과 달리 욱의 과거에서 불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제 그는 욱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선을 보라. 당신의 독선을 보라. 하나님을 희생시키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의지를 보라.” 그는 “문제는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고난이 시작된 후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욱이 문제는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당신의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용어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정의함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안을 그에게 주었고, 욱 자신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도 그의 독선과 하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위에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것을 재정의했지만 보복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욱의 의로움에 대해 다른 종류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엘리후는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 더 옳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옳을 더 현실적으로, 더 적절하게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문제는 누구보다 진리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나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보복 원칙을 사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을 훑어가면서 엘리후의 부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더 면밀히 평가할 것입니다.

청구 해결 시도의 보복 삼각형 [14:59-15:18]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주장의 삼각형,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방식,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책의 시나리오를 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긴장 중 일부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복 원칙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보복 원칙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긴장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들이 고대 근동에서 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동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복 원칙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단단히 연결된 삼각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본성을 타협했을 뿐입니다.

다른 때에는 사람들이 고통의 목적과 관련하여 타협하거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 교육적, 인격 형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고통의 목적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복 원칙의 일부 긴장이 해결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장하는 보복 삼각형: 타이밍 [15:18-18:02]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긴장을 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때때로 타이밍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긴장을 해결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시다시피 애가 시편에서 대부분의 경우 보복 원칙의 맥락에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적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보복 원칙에 대한 질문은 애가 시편의 많은 부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시편은 시간의 관점에서 다루어집니다. 결국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에게 대항하여 행동하시고 시편 기자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때때로 기독교 신학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 천국에서의 영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척도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작은 일들은 사소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연장된 시간 개념으로 보복 원칙을 한정합니다.

해결책으로서의 정의와 세계 [18:02-19:07]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의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복 원칙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의롭게 행동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계에는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정의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의 유일한 기초가 아니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것은 그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세상을 자신의 정의에 따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순응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복합체 [19:07-20:47]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는 단지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그의 전체 성품, 속성의 전체 범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보복 원칙에 자격을 부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세상이 다르며 세상에 공의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공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불완전한 세계, 타락한 세계, 심지어 아직 완전히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세계라는 매개 변수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셨고, 무질서와 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 원칙에 대해 우리가 찾은 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시편, 특히 지혜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세상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공의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신학적 설명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속담입니다.

신학적 해결책이 아닌 보복 원칙 [20:47-23:08]

보복 원칙은 본질적으로 속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사물이 자주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항상 작동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증이 아닙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보복 원칙은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신정론입니다. 보복 원칙은 신정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응의 원칙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항상 어떻게 일하시는데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증입니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각하게 처벌하시지만 그런 일을 끝까지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과 성격은 세상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보복 원칙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정론에 반대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설명합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옅기는 신학이 신정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둘을 분리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방어가 필요하지 않으신다 [23:08-24:18]

야훼의 정의는 우리 경험에 대한 매 순간의 분석을 철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정론, 신정론에 대한 우리의 시도는 신에 대한 약간의 모욕입니다. 그는 우리의 방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를 유능하게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신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전체 별자리는 복잡하고 조정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공의를 선택하실지, 언제 자비를 선택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연민이 그가 해야 할 일을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정의는 그 별자리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모든 속성을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에서 목적으로, 신정론에서 신학으로 이동하는 예수[24:18-27:59]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보복 원칙 질문에 직면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인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큰 기회를 봅니다. 여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바로 보응 원칙 질문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이냐, 그의 부모냐.” 보십시오, 이것은 큰 수수께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부모라면, 그 남자는 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정말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이 신정론적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신정론적 질문이고 일종의 확장된 신학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정론에서 신학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가 “이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 안돼, 그가 또 하고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보지 말고 원인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원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과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미래로 관심을 돌리고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과거와 원인에서 돌이켜 목적을 보도록 하십니다. 고통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이 결국 얻은 것과 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원인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누가복음 13장 떨어지는 탑[목적 이동을 야기함] [27:59-29:52]

예수님은 다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람들이 축제를 위해 그곳에 있는 동안 무너진 이 탑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의 무작위로 보이는 재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그 원인에서 돌이키십니다. 그것은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죄와 형벌이 일대일로 대응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오히려 이 사건을 경고로 보도록 권면한다. 그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거부하고 청중의 관심을 그러한 사건의 목적으로 안내합니다. 경고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고통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일대일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면한 보응의 원칙 문제를 다룰 때 일관되게 이유를 제시하거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하기 시작할 때 욕기가 하려는 일의 큰 부분입니다.

이제 섹션별로 욕기 자체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그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회기 욕기의 신학적 기초, 보응 원리 삼각형입니다. [29:52]